



수능등급제 폐지 등 대입제도의 혁명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광주 모교고 2학년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최원일 기자 jrw@kwangju.co.kr

# “수능등급제 없어지나” 고교 대혼란

### 학사 관리체계 통제 흔들려 불안 “본고사 부활 대비해야 하나” 초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학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등급제를 올해 안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일선 고교가 일대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고교 교사와 학생들은 수능등급제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가 시행 1년만에 전면 재검토됨에 따라 ‘어지러워 못살겠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특히 올해 고 3이 되는 학생들은 “시험 준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대입 전형 방식을 확정짓으면 좋겠다”며 오락가락 교육정책을 비난했다.

광주 J여고 박모(여·49) 교사는 “지난 1년간 수능등급제에 맞게 학사

관리를 통해 2학년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갑자기 등급제 폐지 검토 소식이 들리고 깜짝 놀랐다”며 “등급제에 맞춰 산정한 성적이나 기존의 등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학교 송모(여·30) 교사도 “수능등급제의 문제점은 다들 아는 사안인데 무조건 폐지를 해버린다면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만큼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신고 정호경(51) 교사는 “대학 입시를 대학 스스로 맡긴다고 했을 때 과연 대학 스스로 맡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라고 우려

를 표명했다.

올해 대학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 2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컸다. 전남여고 2학년 박미영(여·18)양은 “수능등급제가 문제 있다고 해서 바로 바뀌려면 1년 내내 등급제에 맞춰 공부하고 전라를 준비했던 우리만 피해 입는 것 아니냐”며 “제발 몇년간이라도 교육정책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학생은 “잘못된 정책이라면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적응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입시제도를 흔들면 도대체 어디에 맞춰 공부를 하란 얘기냐”고 토로했다.

경신여고 2학년 김고운(여·18)양은 “수능 등급제에 문제가 많다는 건 알고 있다. 폐지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거면 빨리 바뀌어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차기정부가 검토하고있는 자사고(자립형사립고) 확대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광주 모 고교 김모 교사는 “자사고의 경우 연간 2천500만~3천만원의 학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학교를 급격히 늘릴 경우 사교육비가 크게 늘 것이며,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이 예상되므로 도입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정책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 J여고 손모(여·54) 교사는 “자사고는 엘리트 인재를 양성해서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 ‘소수가 여럿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기동 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대학 입시도 대학 스스로 자율권이 주어져 국가적 통제에서 벗어나 인재 육성에 맡기고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팔성기자 kps@kwangju.co.kr

## 광주 연말정산 집단 가짜 영수증 대검 선정 ‘범물 물상식 사건’ 뽐벼

대검찰청은 2007년 한 해의 사건 중 지난해 7월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했던 대기업 근로자 수천명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건을 ‘범물 물상식 사건’으로 선정해 3일 발표했다.

근로자들이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해왔던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중대한 범법행위여서 눈 앞의 이익을 쫓다 자칫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7월 광주지역 대기업인 K사 등의 근로자 2천570여명이 2005~2006년 2사할 등 광주지역 4개 사할 주지들에게 영수증 1장당 5만~15만원씩 주고, 136억 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해 근로소득세 21억원을 포탈했다가 사할 주지 4명과 근로자 4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근로자 18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나머지 근로자들은 5~10%의 가산세가 부과된 과징금을 물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세금 포탈은 조세행정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어느 정도 범물상식만 갖고 있어도 이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서 또 ‘보이스피싱’ 피해

### 금감원 사칭 개인정보 빼내 1,800만원 인출

광주에서 또 다시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 현금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북구 신원동 J아파트에 사는 황모(55)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고 있으니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번호를 빨리 바꾸라”는 전화를 받았다.

황씨는 곧바로 북광주농협 현금인출기로 달려가 전화로 알려준 계좌번호로 1천800여만원을 계좌 이체한 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사기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화 금융사기가 또다시 기승을 부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녹음된 목소리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 “범원서 택배 와 겁났는데 사랑의 김치 가득 눈시울”

### 선물받은 장애인, 광주고법에 감사 편지

“마음이 훈훈하고 살맛나는 하루였습니다. 보내주신 김치와 라면 잘 먹고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 것입니다.”

구랍 24일 광주고등법원에 한 통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보낸 사람은 딸(중 1)과 아들(초등 6)을 둔 지체 1급 장애인 유모씨. ‘뜻하지 않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써 내려간 유씨의 편지에는 김장김치와 라면을 보내온 광주고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가득했다.

유씨는 편지에서 ‘범원서 택배가 왔다고 해서 약간 겁이 났지만, 막상 택배를 열어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며 ‘범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가족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임을 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마음을 전했다.

9년 전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를 안게 된 유씨가 어렵게 돈을 벌 이유는 전날 택배로 배달된 김치와 한상자의 라면 때문이었다. 이태은 광주 고법원장과 판사 8명, 그리고 직원 60여명이 전국 우수법원으로 선정받은 포상금과 찬조금으로 손수 담고 구입한 위문 품이었다.

광주고법은 구랍 20일 포상금과 찬조금 등으로 구입한 절인 배추 700kg과 양념 300kg 등을 이용해 김장 김치를 담근 뒤 이를 광주지역 소년소녀가장 34가구와 독거노인 140가구 등에 라면 상자와 함께 전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육상 눈 치우다 추락사

지난 2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단층주택 옥상에서 눈을 치우던 윤모(71)씨가 3m 아래 마당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부인 이모(여·66)씨가 발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씨는 경찰에서 “외출하고 돌아와보니 남편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윤씨가 옥상에서 눈을 치우고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전과 7범 택시기사 10대 승객 성폭행

광주동부경찰은 3일 술취한 여성 승객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택시기사 김모(27·광주시 북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랍 7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서 술에 취한 S씨(여·19)를 태운 뒤 무등산 인근의 한적한 도로에서 성폭행하고 30여분간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폭력 등 전과 7범인 택시 기사 김씨는 S씨를 목격적인 서구 치평동에 내려준 뒤, 뒤따라가 강제로 택시 조수석에 태워 무등산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주 전문메디노기과 의원**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 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 233-5119  
광주 삼정지구 황매동 35번지 4층 401호

## 나원침 (7400) 김장독



**다 좋은 건속 신원서 KCC**  
DS건설(주) KCC건설, 연세모터, 대우건설  
KCC형호, 시스텔형호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건축, 대우건설, 대우건설  
실리콘·방수제·철척제·타이프

### 허경영 총재 광주시장 잠정 폐쇄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 이색공약으로 TV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한 허경영 총재의 경제공약단 광주시당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잠정폐쇄.

○경제공약단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3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B빌딩 4층(149㎡)에 입주한 후 월 임대료 100만원씩을 내왔지만 대선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지난 2일 당사를 잠정폐쇄했다는 것.

○시당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당에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임대료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냈는데 더 이상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광주시당 관계자는 “4월 총선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임대료의 다른 건물로 옮겨 조만간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팔성기자 kps@kwangju.co.kr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00 / 010-722-0100